

광주 서점 10년간 절반으로 줄어 ▶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현대판 노예' 양산하는 직업소개소 ▶6
kwangju.co.kr

전통 만나고 훈느끼고…장인 찾아 떠난 여행 ▶13
제19696호 1판 2014년 3월 13일 목요일 (음력 2월 13일)

미래 먹을거리 광주 문화·콘텐츠, 전남 해양관광

정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지역특화 산업 적극 육성
광주·전남에 중추도시권 3곳·도농연계권 4곳 지정
광주에 도시첨단산단 조성…그린벨트 규제도 완화

박근혜 정부가 12일 전국 자치단체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광주·전남지역의 미래 먹을거리로 문화·콘텐츠 산업과 서남해안 해양관광사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또, 광주·전남지역에 중추도시권 3곳, 도농연계권 4곳 등 모두 7곳의 지역행복생활권을 지정해 교통 등 사회 인프라와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등을 공유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 연설회의

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11면〉

정부는 나후된 광주의 지역 특화산업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밝혔으며, 광주시와 공동으로 육성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국비를 투입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며, 2015년 광주에 개관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올해 말 개통하는 KTX 호남고속철을 연계해 광주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또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을 위해 3D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과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정부 지원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는 3D 콘텐츠 사업과 관련해 CGI센터를 중심으로 VFX(특수 시각 효과), CGI(컴퓨터 그래픽 이미지) 등 영화관련 기술과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주체 확정과 콘텐츠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기대하고 있다. 시는 정부의 문화·콘텐츠 사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개최, 폴리 프로젝트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내년까지 광주와 인천, 대구 등 3곳에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하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 등에

공장용지 설립 허용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광주시의 공장부지 부족 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도 이날 정부 발표 계획에 따라 서남해안에 해양관광사업을 특화시켜 해양관광 허브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특화산업으로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 서남권경제

지구역구역 지정, 친환경 해양관광·휴양단지 조성 등을 통한 '해양관광거점 조성'과 서남해안 국제크루즈 기반 조성, 토산산업과 관광의 융·복합, 해양스포츠 산업 육성 및 국제 해양스포츠 대회 개최 등을 통한 '해양스포츠 허브 조성' 등이다.

또 갓벌, 강 습지, 강 하구, 내습지를 연계한 생태관광 클러스터 조성이나 섬 개발 등을 통해 특화 해양관광도 입증 개발할 예정이다. 또는 이를 사업에 오는 2026년까지 그

동안 투입된 국비 5526억원을 포함해 2조8376억원 등 모두 9조256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특화발전 프로젝트 사업을 최종 선정한 뒤 재정과 규제완화 등을 페키지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에서 이날 발표한 지역행복생활권은 중추도시권 20곳, 도농연계권 18곳, 농어촌권 21곳 등 전국 56곳이며, 광주·전남은 중추도시권 3곳, 도농연계권 4곳 등 7곳이 포함됐다.

지역위와 관계부처는 6월까지 이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정부지원사업을 선정하고 내년 예산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원형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기자 lucky@kwangju.co.kr

지역정치권 의원직 사퇴 도미노 오나

이낙연 첫 선언…주승용·이용섭 뒤 이을 듯

전남지사·광주시장 선거 배수진…지역정치권 재편

6·4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경선(통합 신당)에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사퇴가 줄을 이을 전망이어서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전남지사 출마에 나선 민주당 이낙연 의원(4선, 함평·영광·장성·담양)은 12일 오전 국회 사무처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데 이어 이날 오후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남지사 후보로서 국회의원의 기득권에 기대지 않겠다는 애초 약속에 따라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며 “13일 전남지사 예비 후보 등록도 마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전남지사 경선에 나서고 있는 김영록 의원(2선, 해남·진도·완도)은 “의원직 사퇴는 유권자를 압박하는

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밝혀 전남지사 선거에 정치 운명을 걸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남지사 유력 후보로 꼽히는 주승용 의원(3선, 여수 을)도 “이미 지난 1월 깨끗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다만 중앙당의 자제 요청으로 의원직 사퇴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의원직에 연연할 생각은 주호도 없다”고 밝혀, 조만간 의원직 사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광주시장 경선 주인 이용섭 의원(2선, 광산 을)도 “이미 의원직 사퇴를 통한 기득권 포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다만 그 시기를 잡시숙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남지사 경선에 나서고 있는 김영록 의원(2선, 해남·진도·완도)은 “의원직 사퇴는 유권자를 압박하는

측면이 크다”며 “무리한 사퇴 경쟁보다는 정책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의원직 유지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를 계기로 광주·전남지역에서 3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김선동 의원(순천·곡성)과 배기운 의원(나주·화순)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광주·전남지역의 7월 국회의원 재보선은 많게는 5개 지역구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지역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의원직 사퇴는 국회 회기 중인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비회기 중일 때는 국회의장의 결재로 처리된다.

과거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역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처리되지 않은 적이 있지만 정치 쇼라는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됐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사퇴서 제출은 곧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의료계 집단휴진 진정 조짐

정부 원격진료 상정 유보

의사협회 “대화에 임할 것”

정부가 오는 24~29일로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집단 휴진을 막기 위해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원격의료 도입 관련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당근’과 ‘체찍’ 전략을 함께 펼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국무민답회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강행은 더 이상 방지할 수 없고 국민께서도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총리는 그러나 이번 정부·의료계 충돌의 주요 배경 중 하나인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이날 담화문을 통해 “원격의료와 관련, 의협에서 걱정하는

사안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 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소 진정된 ‘협상’도 제시했다.

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려고 한다”며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현실화(인상) 관련 대화에 응할 의사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대화하겠다는 입장장을 밝힌 것을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 (1954~2014)
60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임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예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4년 3월호

2월 28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스 : 062-222-0195



기획
기살아라 전라도 사투리
변방의 말 편견 벗고 문화 창조에너지로 살아나는 전라도 사투리에게 보내는 응원

기획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시대 개막 야구장 이상의 복합문화공간 기대
하늘에서 내려다본 '꿈의 구장' 신구장의 매력과 경기, 관람시설

예향 초대석
건축거장 우규승이 아시아문화전당에 담은 철학
“역사와 사람 향해 열린 공간을 생각했죠”
이달의 아티스트
세계미술계가 주목하는 블루칩 작가 서정민
“나의 꿈은 한국적 미술”

마주앉은 책과 삶
출간 20년 맞은 스테디셀러 ‘미학오디세이’ 저자 진중권이 사랑하는 책과 미학이야기

문화공간 카페 ‘소소한 풍경’으로 ‘문화소풍’을 떠나다
히말라야를 걷는다
전고조 ‘풀꽃산악회’와 함께 떠난 에베레스트 칼라파타르 트레킹

이사람 양우석 감독에게 듣는 영화 ‘변호인’ 탄생 뒷이야기

스타 데이트
‘쓰레기’역으로 전성기 맞은 배우 정우 “나에게 ‘응사’는 참 멋있는 놈”

문화 화제
대표작 사진집 출간한 사진작가 김녕만의 휴머니즘 앵글
‘마/기/희’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오지호, 김삿갓의 예술혼을 만나다